

■ US오픈 테니스

“이형택 16강 이번 아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 큰 관심

‘한국 테니스의 간판’ 이형택(31·삼성증권)의 선전에 세계 주요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3일(한국시간) 인터넷판에 ‘이형택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형택의 US오픈 남자단식 16강 진출이 이번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의 리즈 로빈스 기사는 “(처음 US오픈 16강에 갔던) 2000년에는 아무도 나를 몰랐다. 그 대회 이후 100 위권 안에 진입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이형택의 말을 전했다.

이형택은 이 기사에서 “지금은 결혼도 했고 나이도 먹었다. 그런데 성적이 더 좋아지자 주위 사람들이 놀라면서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요나스 비요크만, 팀 헨만 등이 이형택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인데 이들은 모두 2회전에서 탈락했다. 이형택의 경험은 지혜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 타임스 “손과 발이 빠르다”

로이터 통신 “뉴욕서 꿈 이뤘다”

주요 외신들 ‘베테랑’ 표현 사용

또 이형택에 대해 “손과 발이 빠르다. 공을 빨리 치며 콤팩트한 경기 운영을 한다”고 평했다. 이 기사는 특히 이번 대회 여자단식에 출전한 조윤정의 통역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성숙한 이형택이 뉴욕에서 꿈을 이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형택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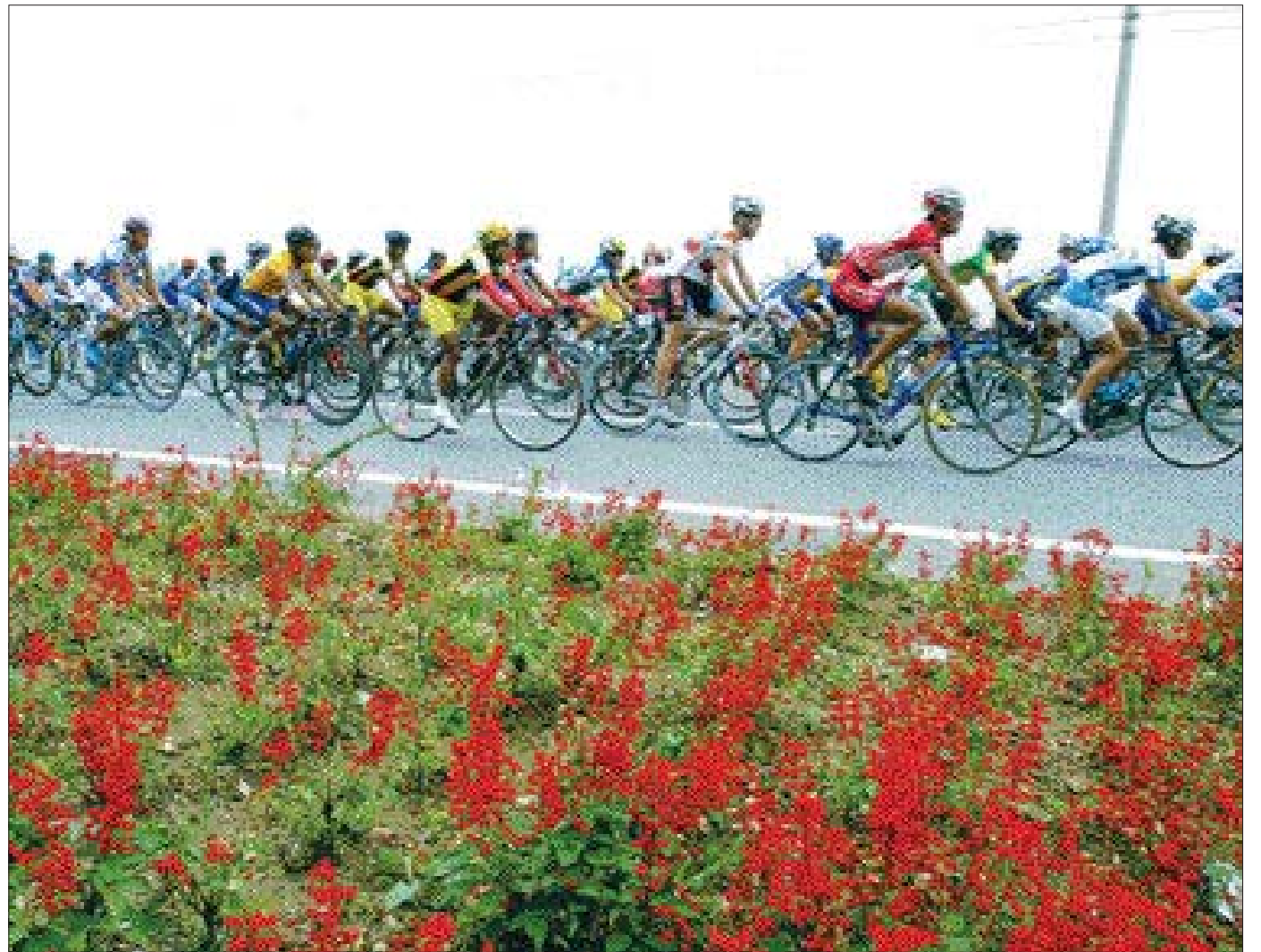
이 기사를 쓴 래리 파인 기사는 “이형택이 해가 갈수록 테니스를 즐기는 법을 배운 결과 뉴욕에서 꿈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형택은 이 인터뷰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하기보다 경기를 더 즐길 수 있도록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테니스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즐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체력적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할 지 모르겠다”며 “관중의 열광이 정말 크다. 응원해준 한국에 있는 팬들이나 경기장을 찾아온 관중 덕에 힘이 많이 났다”고도 말했다.

이형택은 인터뷰에서 “2000년 피트 샘프라스와 16강전에서 긴장했다. 이번 니콜라이 피티코프전은 긴장을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US오픈 16강 진출로 주요 외신들은 이전까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베테랑’이라는 수식어를 이형택 이름 앞에 쓰고 있다. 이형택이 다비덴코를 맞아 베테랑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지 기대된다.



가을꽃 내음 맡으며...투르 드 코리아 질주 현대캐피탈 인비테이셔널 투르 드 코리아 2007에 참가한 선수들이 3일 오전 강원도 양양군청 앞을 출발, 7번 국도를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초롱 아쉬운 2위

44세 노장美 스테인하워 17연승

LPGA 스테이트팜클래식 최종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코리안 시스터스’의 시즌 다섯번째 우승이 또 다시 다음 대회로 미뤄졌다.

3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랜더 크릭 골프장(파72·6천608야드)에서 막을 내린 LPGA 투어 스테이트팜클래식 우승컵은 노장 셰리 스테인하워(미국)에게 돌아갔다.

올해 44세인 스테인하워는 이날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타를 줄인 끝에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했다.

시즌 첫 우승이자 지난해 브리티시여자오픈 제패 이후 1년만에 우승컵을 보낸 스테인하워는 통산 우승을 8회로 늘렸다.

재미교포 김초롱(23·사진)은 보기없이 6개의 버디를 쓸어 담으며 맹추격을 펼쳤으나 선두와 1타차를 좁히는데 그쳐 16언더파 272타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김초롱은 16~18번홀에서 3개홀 연속 버디를 뽑아내 공동 선두로 경기를 끝내 한때 연장전을 기대했으나 바로 뒷홀에서 경기를 치른 스테인하워는 17번홀(파3)에서 먼 거리 버디 퍼트를 집어넣으며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았고 18번홀(파4)을 파로 막아내 우승을 확정지었다.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19)은 4언더파 68타를 때려 5위(12언더파 276타)에 올라 신인왕 군호기에 들어갔고 장정(27·기업은행)은 무려 7타를 줄여 6위(11언더파 277타)로 수직 상승했다.



3언더파 69타를 친 김주미(23·하이트)가 공동7위(10언더파 278타)를 차지해 ‘톱10’에 한국 선수 4명이 포진했다. 자존심 회복에 나선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5언더파 67타를 쳤지만 3라운드에서 1타밖에 풀이지 못한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공동3위(14언더파 274타)에 그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동진 결승골

팀 4연승 전인

러시아 프로축구

러시아 프로축구에서 활약 중인 김동진(25·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이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팀의 정규리그 4연승을 이끌었다.

김동진은 3일 홈 구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페트로프스키 경기장에서 열린 쿠반 크라스노다르와 2007 러시아 정규리그 23라운드에서 풀타임을 뛰며 후반 33분 콘스탄틴 지리아노프의 결승골을 도와 팀의 1-0 승리에 힘을 보탰다.

김동진은 지난달 20일 톰스크와 21라운드 홈 경기(2-1 승)에서 두 골을 뽑은 뒤 31일 열린 비온 즐라테 모라프체(슬로바키아)와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컵 예선 2라운드 2차전(3-0 승)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하는 등 최근 4경기에서 3골1도움을 올리는 맹활약을 이어갔다.

제니트의 덕 아드보카트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두 경기 연속 백업 수비수 없이 치렀는데 모험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왼쪽 수비를 맡는 김동진이 중앙에서도 뛸 수 있다”며 멀티플레이어 김동진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다.

파죽지세로 정규리그 4연승을 달린 제니트는 12승7무4패(승점 43)가 돼 이날 CSKA 모스크바에 1-1로 비긴 스파르타크 모스크바(12승7무4패)와 승점이 같아졌지만 골득실에서 뒤져 2위를 지켰다. 제니트의 이호는 출전하지 않았다.



‘황제의 대추격’

우즈, 선두에 3타차 따라붙어 공동 4위...위창수 공동 28위

PGA 도이체방크챔피언십 3R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두 번째 대회인 도이체방크챔피언십이 흥미진진한 최종 라운드를 남겼다.

3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보스턴 TPC(파71·7천207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선두 자리를 꿰찬 선수는 정규시즌 포인트 순위 50위의 브렛 웨터릭(미국)이지만 타이거 우즈(미국)와 필 미켈슨(미국)이 턱밑까지 따라 붙어 우승자를 선볼리 점칠 수 없게 됐다.

올해 우승이 한번도 없이 상급랭킹 40위에 페덱스컵 포인트 50위로 플레이오프에 나선 웨터릭은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때리며 중간합계 13언더파 200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

다음 대회인 BMW챔피언십은 플라도 마지마 대회인 투어챔피언십 출전은 어려워보였던 웨터릭은 도이체방크챔피언십 우승으로 1천만달러의 플레이오프 1위도 거머쥌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나란히 5타를 줄여 1타차 2위에 오른 아론 오버홀저(미국·201타)와 최종 라운드에서 챔피언십에서 경기를 치르는 웨터릭은 그러나 우승까지 내달리기에는 추격자들의 면면이 만만치 않다.

세계랭킹 3위에 페덱스컵 포인트 5위에 올라 있는 필 미켈슨(미국)이 불과 2타 뒤진 3위(11언더파 202타)로 따라 붙었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도 3타차 공동4위(10언더파 203타)에 올라 역전 우승 사정권에 포진했다.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는 2언더파 69타를 쳐 공동28위(5언더파 208타)로 순위가 다소 내려 앉았다. 위창수는 최종 라운드에서 분발하지 않으면 다음 대회인 BMW챔피언십 출전이 어려워지는 위기에 몰렸다.

2타를 줄였지만 공동49위(2언더파 211타)로 처진 나상욱(23·코브라골프) 역시 BMW챔피언십 출전 전망이 어두워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윌리엄스 자매 나란히 8강행

199.6km의 강서브를 앞세워 완승을 거뒀다. 서리나는 이로써 올해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모두 8강 이상의 성적을 낸 유일한 여자 선수가 됐다.

직전 메이저대회인 윌버던 단식을 제패했던 비너스 윌리엄스(미국)도 이어 열린 경기에서 안나 이바노비치(세르비아)를 2-0(6-4 6-2)으로 손쉽게 따돌렸다.

둘은 8강을 통과할 경우 4강에서 맞대결하게 된다. 둘의 상대 전적은 7승7패로 팽팽하며 가장 최근 대결인 2005년 이 대회 16강전을 포함해 비너스가 2연승을 거두고 있다.

서리나 윌리엄스는 디나라 사피나(러시아)를 2-0(6-0 6-2)으로 완파한 톰시드 쥐스틴 에빙(벨기에)과 8강에서 맞붙고 비너스 윌리엄스는 3번 시드 옐레나



서리나

비너스-서리나 윌리엄스 자매가 US 오픈테니스대회(총상금 184억원) 여자 단식 8강에 진출했다.

올해 호주오픈 단식 우승자인 동생 서리나(미국)는 3일(이하 한국시간) 뉴욕 플러싱 메도 빌리진 킹 내셔널테니스 센터에서 벌어진 여자단식 16강전에서 마리온 바틀리(프랑스)를 2-0(6-3 6-4)으로 제압하고 8강에 올랐다.

세계랭킹 9위 서리나는 바로 한 계단 아래인 10위 바틀리를 맞아 최고 시속



비너스

안코비치(세르비아)와 겨룬다. 모두 상위 랭커와 맞붙게 돼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원손 천재’ 라파엘 나달(스페인)은 남자단식 16강에 진출했다. 세계랭킹 2위 나달은 남자단식 3회전에서 세계랭킹 74위 조 윌프리트 총가(프랑스)를 3-0(7-6(7-3) 6-2 6-1)으로 완파했다. 나달은 다비드 페러(스페인)와 8강 진출을 다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